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27번>	<폴더 39번>	<폴더 14번>	<폴더 15번>
주 네 맘에 들어가시려	축복송	임마누엘	꽃

제 1독서 | 예제키엘 33,7-9

화답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옆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독서 | 로마서 13,8-10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8,15-20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굳게
기거려요.



바오로말콘텐츠

<오늘의 독서와 복음>

<제 1독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너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9 그러나 네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8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9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17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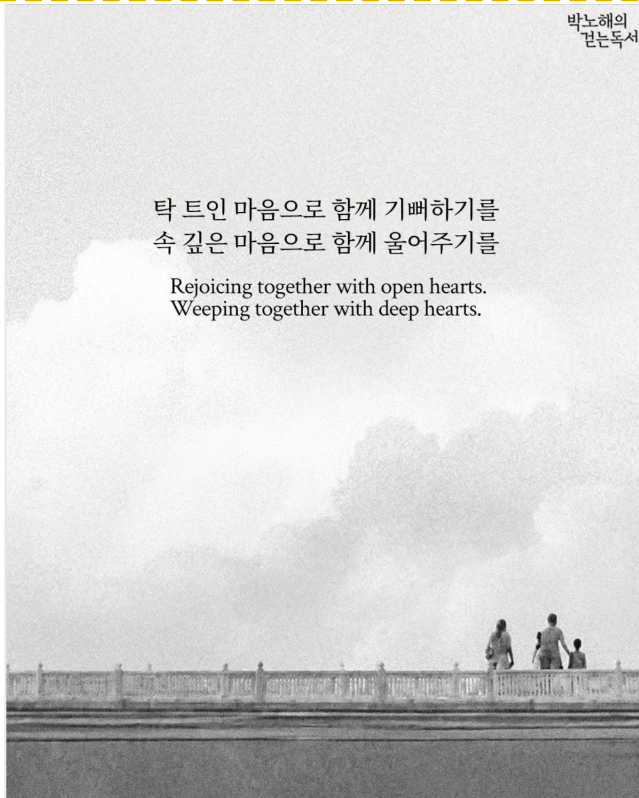
19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박노해의
걷는독서

탁 트인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기를
속 깊은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기를

Rejoicing together with open hearts.
Weeping together with deep hearts.



"하느님은 우리의 위로시요, 우리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원의이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죽습니다."

— 첫 번째 편지, 1842년 4월 26일

<마카오에서 홀로, 하느님을 바라보다>

1842년 마카오의 작은 방, 홀로 앉아 펜을 들고 있었을 젊은 최양업 토마스 신학생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 봅니다. 철학 공부를 마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던 해, 스승이신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드린 이 첫 번째 편지에는 신학생의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일한 동료 신학생 김대건 안드레아는 메스트르 신부님과 함께 프랑스 군함을 타고 조선 입국 경로를 탐색하러 떠났고, 신학생 최양업은 마카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과 작은 의자, 단출하고 소박한 방에 앉아 자신의 스승 신부님께 글을 쓰고 있는 젊은 신학생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모습에서는 고독과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그 고독과 고요함은 때로 외로움과 불안으로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최양업은 박해받는 고국과 목자 없는 신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최양업 신학생은 하느님께 위로를 받고, 오직 그분께 희망을 두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최양업 신부님의 이런 믿음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만이 나의 위로>

첫 번째 편지에는 모든 것이 오직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젊은 신학생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도 위로자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믿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위로이시며, 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처럼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풍부한 자비에 희망을 갖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 세 번째 편지, 1846년 12월 22일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설렘과 기대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긴장과 불안을 안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해

시대, 오로지 하느님과 고국의 신자들을 위해 사제가 되고자 먼 타향에서 살아가던 최양업 신학생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기대와 흥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돌아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여러 어려운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그 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외로움과 불안이 우리 자신의 삶을 견딜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 안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이 감옥에서 얼마나 오래 갇혀 있을까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생각이 생각을 잡아먹는 감옥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갇아먹습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편지는 이런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라고 초대합니다. 신부님께서 자신의 고독과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를 찾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어 하느님을 찾고, 그 안에서 자유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희망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지식이나 건강입니까? 명예나 권력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열한 것들에는 분명 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희망하는 것은 남들이 보고 믿는 물리적인 것이나 곧 우리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희망을 가지려면 먼저 올바른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하느님 없이 무언가를 희망한다면, 그 희망은 결국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뿐입니다. 참된 하느님이 아니라 나의 뜻만을 채워 주시는 하느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께서 편지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기도하고 애원하며 애덕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를 위해서 쏟으신 성혈을 기억하시고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를 굽어보소서."

공지 사항

1. 네팔-티베트 홍수 희생자와 피해자들 위한 기도

네팔과 티베트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재난의 한가운데 놓인 모든 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희생된 이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실종된 이들이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2. <여정 시즌 9> 성경 나눔 9월 온라인 모임 안내

- 9월 8일(화) 저녁 7시 - Zoom 모임
- 9월 22일(화) 저녁 7시 - Zoom 모임
- 9월 29일(화) 저녁 7시 - Zoom 모임

<다음 모임을 위하여 아래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1테살로니카 5장 1절-28절

* 온라인 모임 때 사용하는 회의실 ID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3. 유아세례식 안내

다음주 주일 미사 중에 ‘김진오, 고해인, 유진 덩’ 아기들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미사 후에는 교육관에서 세례 축하식과 함께 간식 나눔이 있습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9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고다인 라파엘라 (9.29)

* 김우경 가브리엘라 (9.29)

* 박정연 미카엘 (9.29)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수자원 보호>

필수 자원인 물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봉헌금 & 교무금 | (8월 29일 ~ 9월 4일)

봉헌금	\$ 207			
교무금	\$ 730			
구민식	김천주	서미숙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정은영	주정자
최현주	황병옥	허준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퀵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9월 공동체 실천 |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